제목	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 및 전망 (2014.12월)

Ⅰ 최근 유로지역 경제동향

1. 실물경제

① 경기 : 경기지표 소폭 반등

□ 12월중 유로지역 경제는 구매관리자지수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독일,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기둔화세는 지속

* 12월중 소비자신뢰지수(EU 집행위 발표) : -10.9 (전월대비 0.6p 상승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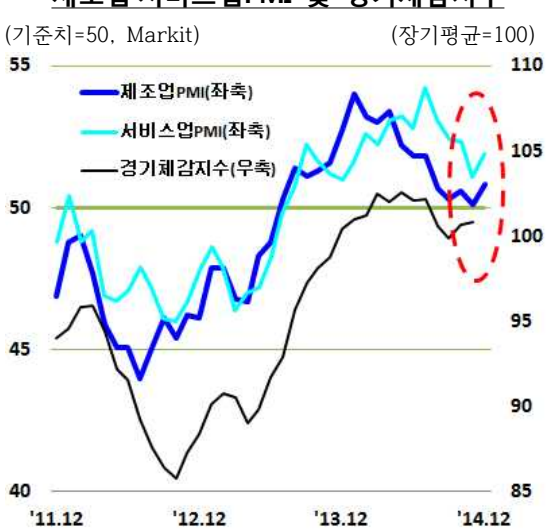
o 2014.12월중 구매관리자지수(Purchasing Managers' Index, 잠정치)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 전월대비 0.7p(50.1→50.8) 및 0.8p(51.1→51.9) 상승

* 제조업지수와 서비스업지수를 가중평균한 복합생산 구매관리자지수(Composite PMI)도 51.7로 전월대비 0.6p 상승

o 한편 산업생산*과 소매판매**는 각각 전월대비 0.1% 및 0.4% 증가(10월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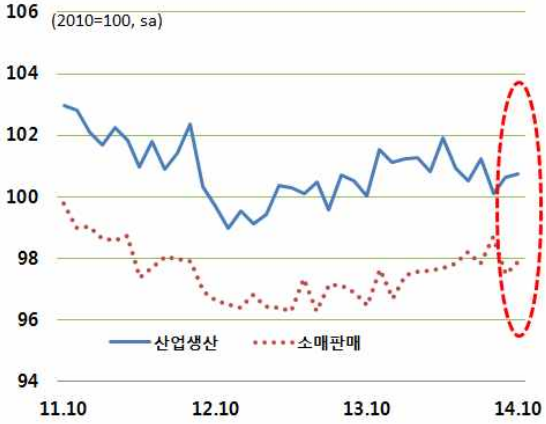
* 자본재 2.9%, 에너지 0.3%, 내구소비재 -2.6%
** 비식료품 -2.2%, 음식료품 -0.1%, 자동차연료 0.9%

제조업·서비스업PMI 및 경기체감지수



자료: Markit, European Commission

산업생산[1] 및 소매판매[2]



주: 1) 건설업 제외 2) 자동차 제외
자료: Eurosta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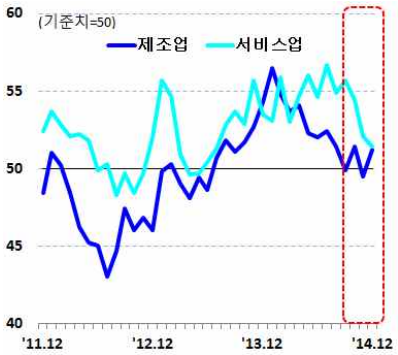
□ 12월중 PMI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는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으며 여타 유로지역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임

o 독일은 제조업부문에서 미약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항공 및 기차부문의 파업,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경기의 하락 반전을 우려하는 분위기 (제조업 PMI: 49.5→51.2, 서비스업 PMI: 52.1→51.4)

o 프랑스는 제조업의 신규 수출주문이 전월에 비해 다소 빠르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부문의 신규 주문은 소폭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 추세가 미미하게 나마 완화되는 모습 (제조업 PMI: 47.9→46.2, 서비스업 PMI: 47.9→49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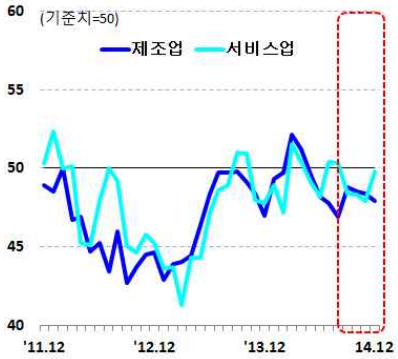
o 여타 유로지역(독일·프랑스 제외)은 신규 주문이 상승하는 등 역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2007년 이후 가장 양호한 경기상황을 보임

독일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Bloomberg

프랑스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Bloomberg

국가별 복합생산 PMI[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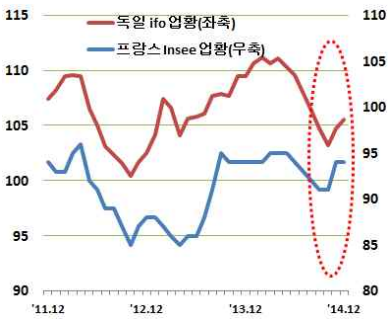
주: 1) 제조업 생산과 서비스업 PMI 가중평균
자료: Markit

□ 12월중 독일 Ifo 업황지수(Business Climate Index)는 105.5로 전월대비 0.8p 상승하였으며 프랑스 Insee 업황지수(Business Climate Indicator)는 94로 전월수준 유지

o 독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지수(Balance 지수)는 전월대비 모두 상승(3.9→6.4, 19.4→25.6)하였으나 프랑스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황지수는 전월수준을 유지 (99→99, 93→93)

獨 Ifo 및 佛 Insee 업황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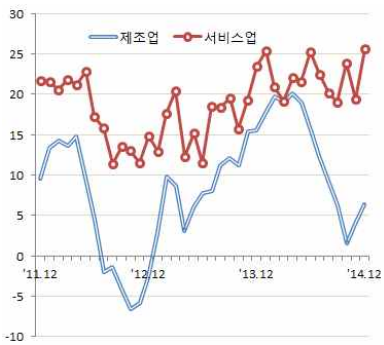
(Ifo 2005=100) (Insee 장기평균=100)



자료: Ifo, Insee

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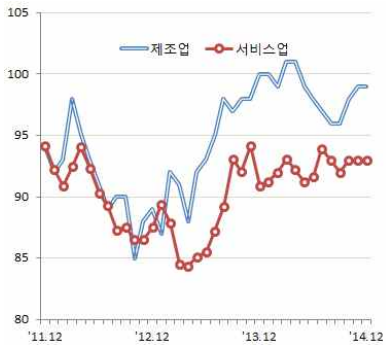
(Balance지수[1)], sa)



주: 1) 양호응답-불량응답=Balance지수
자료: ifo, Bloomberg

프랑스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황지수

(2010=100, sa)



자료: Bloomberg

② 고용사정 : 높은 실업률 유지

□ 2014.10월중 유로지역 실업률은 11.5%로 전월 수준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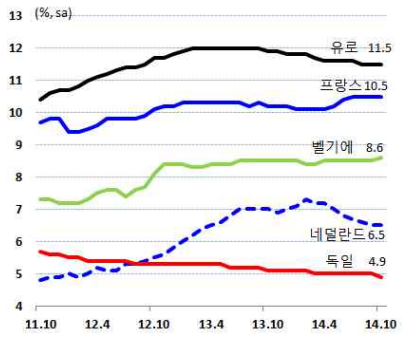
o 중심국의 경우 벨기에와 독일을 제외하고 대체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주변국의 실업률은 전월보다 하락

* 벨기에(8.5%→8.6%), 독일(5.0%→4.9%), 이탈리아(12.9%→13.2%), 포르투갈(13.3%→13.4%)

o 유로지역 청년실업률(23.4%)은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중심국들은 대체로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주변국중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이 다소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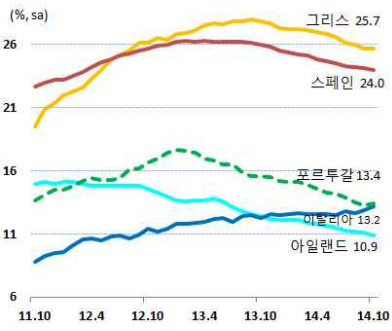
* 이탈리아(42.7%→43.3%), 포르투갈(33.0%→33.3%)

유로지역 및 중심국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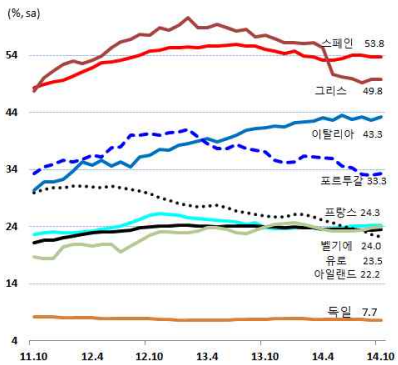
자료: Eurostat

주변국 실업률[1)]



주: 1) 그리스는 2014.9월중
자료: Eurostat

유로지역 주요국 청년실업률[1)]



주: 1) 그리스는 2014.9월중
자료: Eurostat

③ 인플레이션 : 소폭 하락

□ 2014.11월중 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(전년동월대비)은 0.3%로 전월대비 0.1%p 하락

o 난방용 및 수송용 연료의 가격 하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

* 연료 및 개인운송용 차량연료(Liquid fuels and fuels and lubricants for personal transport equipment) : -5.2%

소비자물가(HICP) 상승률

자료: Eurosta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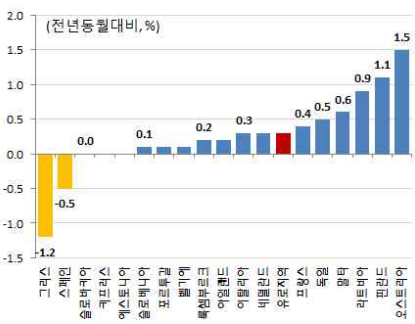
품목별 기여도

(전년동월대비, 잠정치, %, %p)

	전 품목	에너지	음식료품	공산품	서비스
가중치	100.0	10.8	19.8	26.7	42.8
10월 (A)	0.37	-0.22	0.10	-0.03	0.51
11월 (B)	0.30	-0.28	0.10	-0.03	0.51
B-A	-0.07	-0.06	0.00	0.00	0.00

자료: Eurostat

11월중 회원국별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Eurostat

④ 대외거래 : 무역수지 흑자 확대

□ 2014.10월중 유로지역의 역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94.2억 유로로 전월대비 15.0억 유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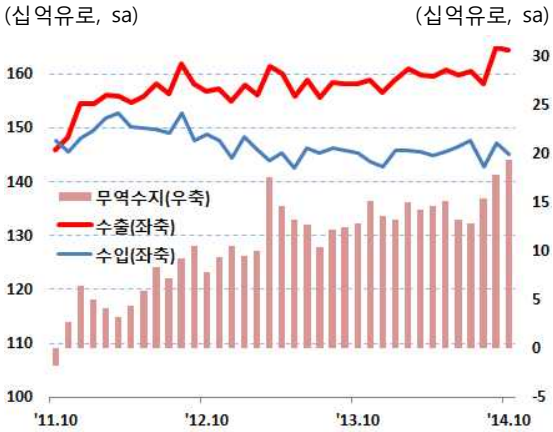
o 전월보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입 감소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짐에 따라 흑자규모도 확대

- 수출: △4.6억 유로, 수입: △19.6억 유로

o 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아일랜드가 역내·외에서 모두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스페인과 그리스는 역내·외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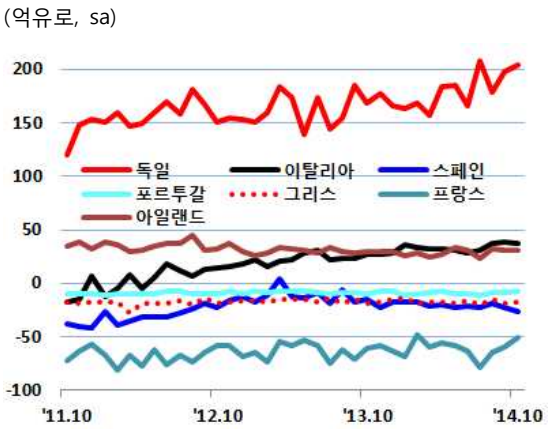
- 독일(역내: 0.9억, 역외: 203억), 아일랜드(역내: 17.7억, 역외: 12.8억)
- 스페인(역내: -4.1억, 역외: -21.9억), 그리스(역내: -7.4억, 역외: -10억)

유로지역 역외 수출·수입 규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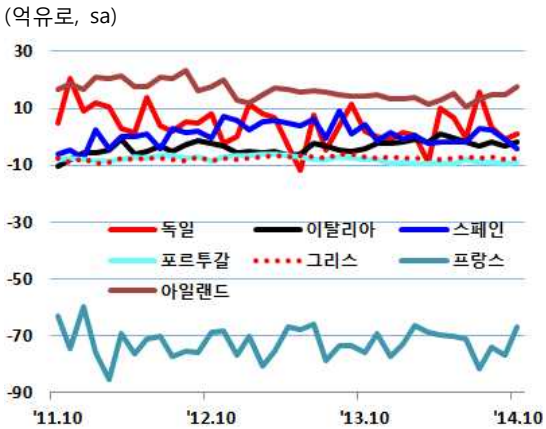
자료: Eurostat

주요국별 전체 무역수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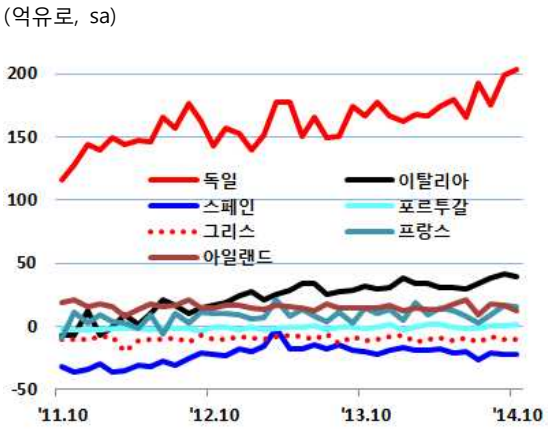
자료: Eurostat

주요국별 역내 무역수지



자료: Eurostat

주요국별 역외 무역수지



자료: Eurostat

<참고> 주요국 실물경제 동향 (2014.10월 지표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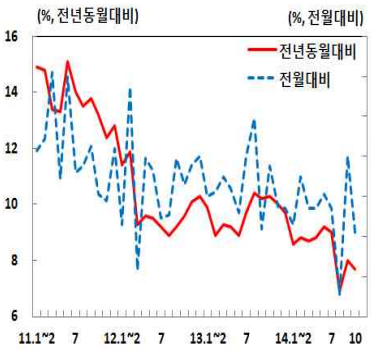
□ **(중국)** 10월중 성장 모멘텀이 전월에 비해 약화

o 소비는 전월과 비슷한 상승폭을 유지하였으나 산업생산, 투자, 수출 등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

o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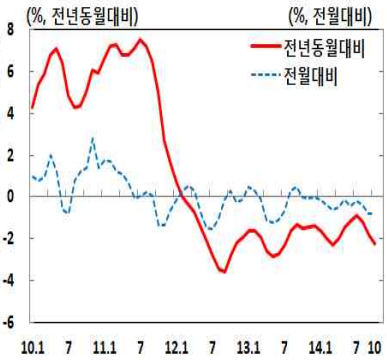
o 실물경기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SOC 투자 확대,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금년 7.3~7.4%, 내년 7.0~7.2%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산업생산 증가율



자료 : 국가통계국

생산자물가 상승률



자료 : 국가통계국

100대도시 평균주택가격

자료 : 중국지수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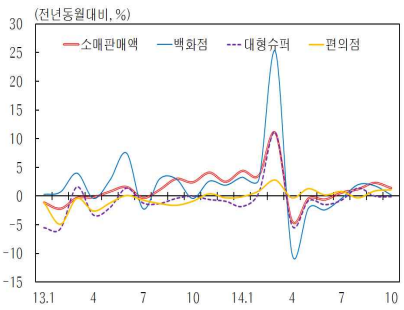
□ **(일본)** 민간건설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 수출 및 광공업생산의 증가세 지속

o 소비자물가(신선식품 제외)는 소비세 인상의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.9% 상승하였으나 오름세가 계속 둔화

o 10월중 부동산 매매량은 전년동월대비 -4.2%로 전월보다 감소폭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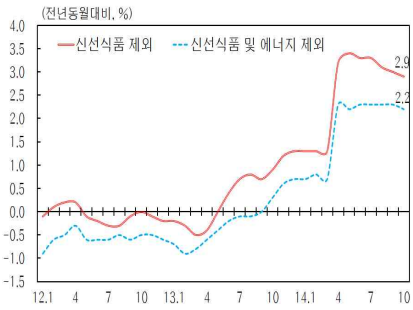
o 내년은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및 실질소득 개선으로 인한 민간소비 회복, 법인세 인하 등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GDP 성장률이 1% 내외로 높아질 전망

소매판매액 증감률[1)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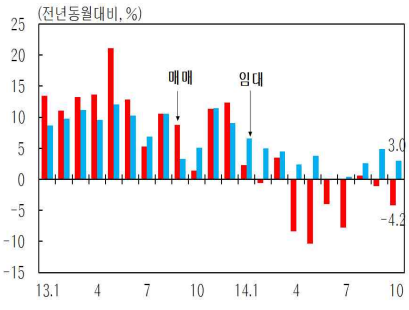
주: 1) 10월 통계는 속보치
자료: 경제산업성(2014.11)

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

자료: 총무성 통계국(2014.11)

전국 주택 매매 및 임대 거래 증감률



자료: 국토교통성(2014.11)

2. 금융 시장

① 시장금리 : 하락세 지속

□ 독일 국채금리(10년만기)*는 12월 들어 유로지역 경제지표의 부진**, 그리스의 정정불안 우려*** 등에 따른 안전자산 수요확대 등으로 하락세 지속

* '14.8월말 0.89% → 9월말 0.95% → 10월말 0.84% → 11월말 0.77% → 12.29 0.54%
** 독일 산업생산지수(MoM) : 9월 1.1% → 10월 0.2%(예상 0.4%)
*** 12.29일 실시된 그리스의 대통령선거 최종투표 결과 Stavros Dimas 지명후보자에 대한 그리스 의회의 대통령 임명안이 부결되면서 조기총선 실시('15.1.25일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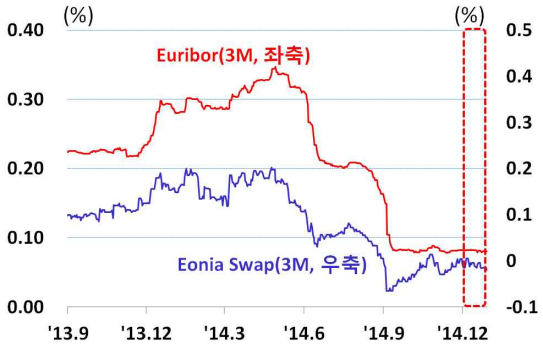
o 유로지역 단기금리*(3개월 만기 Euribor)도 ECB가 전월에 이어 12.4일 주요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초 추가적 완화조치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**이라고 발표하는 등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함에 따라 낮은 수준을 유지

* 2014.8월말 0.163% → 9월말 0.083% → 10월말 0.086% → 11월말 0.082% → 12.29 0.08%
** 그간 취해진 완화조치의 효과, ECB 자산증가현황 및 최근 유가변동을 고려한 중장기 물가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미국·독일 국채금리(10년)

자료: Bloomberg

Euribor 및 EONIA 스왑금리(3M)



자료: Bloomberg

③ 주가 : 하락후 큰 폭 상승

□ 유로지역 주가는 12월 들어 ECB의 추가적 완화조치 미발표에 대한 실망감, 러시아 루블화 급락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중순이후 미 FOMC의 회의결과 발표에 대한 긍정적 반응* 및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수신금리 도입**에 따른 ECB의 추가 완화조치 기대감 부각 등으로 큰 폭 상승

* 금융시장에서는 "통화정책 정상화 착수에 대해 인내심(can be patient)을 발휘할 수 있을 것"이라는 Yellen 미 연준 의장의 발언을 두고 금리인상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
** 스위스 중앙은행은 12.18일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스위스프랑화의 평가절하를 위해 요구불예금에 대한 금리를 '15.1.22일부터 -0.25%로 결정하였다고 발표

유로지역, 독일, 미국 주가지수 추이

주 : 1) 유로지역 12개국의 50개 우량기업으로 구성된 블루칩 지수

자료 : Bloomberg

자료 : Bloomberg

④ 환율 : 유로화 강세후 약세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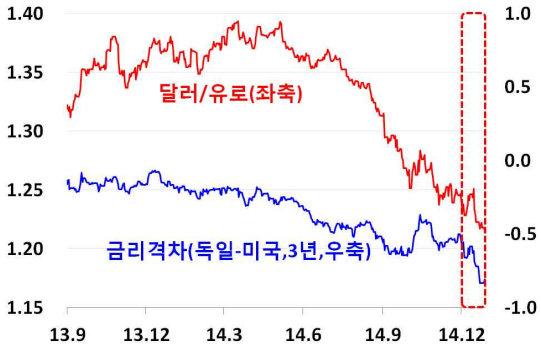
□ 유로화(달러/유로 환율)*는 12월 들어 최근 강세에 따른 미달러화에 대한 차익실현 매도 등으로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중순이후 Yellen 미 연준총재의 금리인상 발언, 스위스 중앙은행의 마이너스 수신금리 도입에 따른 ECB의 국채매입에 대한 기대감 확대 등으로 약세 전환

* 2014.8월말 1.313 → 9월말 1.271 → 10월말 1.253 → 11월말 1.245 → 12.29 1.215

유로화 및 엔화 환율

자료 : Bloomberg

독일 · 미국간 금리격차와 환율



자료: Bloomberg

Ⅱ 유로지역 경제전망

(실물)

□ 유로지역내 주요국인 독일의 경우 완화적 금융여건 등의 영향에 따른 내수증가에 힘입어 성장동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 (ifo 전망자료, 12.11일)

o 완화적 통화기조 및 저금리 지속,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추진, 신규 설비투자 확대 및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2015년중 1.5% 증가할 전망

o 또한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의 추가적 하락기대 약화, 최저 임금제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의 영향으로 2015년중 0.8% 상승할 전망

□ 프랑스의 경우 가계의 지출감소, 기업의 업황개선전망 및 금융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2014년에 비해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(Insee 전망자료, 12월)

o 제조업 생산 증가 및 에너지 생산 플러스 전환 등에 힘입어 2015년중 GDP 증가율은 상반기중 0.3%로 다소 확대된 이후 연중 0.7%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

o 소비자물가는 원유가격* 하락세 지속 등을 감안 2015년 중반까지 0.0%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

* 원유가격 70$, $1.23/€를 전제

2015년중 유로지역 경제지표 전망치

(전분기대비, 전년동기대비, %)

	지표	2014.4/4	2015.1/4	2015.2/4	2015
유로지역	GDP	0.2	0.4	0.3	0.9
	소비자물가	12월중: 0.1	-	6월중: 0.1	-
독일	GDP	0.2	0.5	0.4	0.9
	소비자물가[1)]	0.9			0.8
프랑스	GDP	0.1	0.3	0.3	0.7
	소비자물가	12월중: 0.1	-	6월중: 0.0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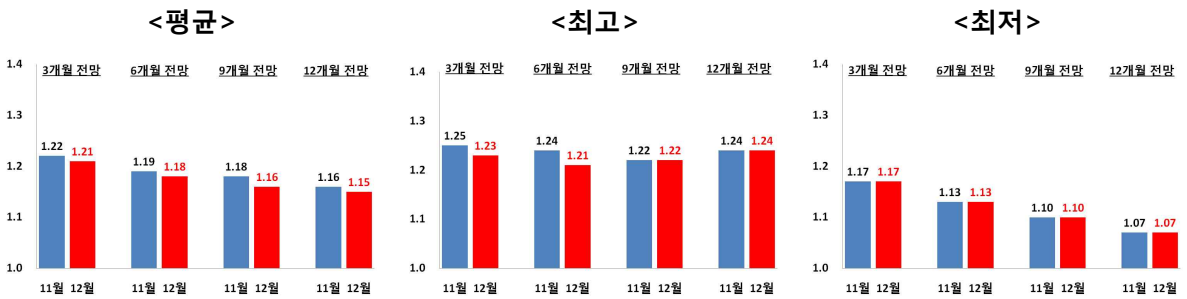
주: 1)ifo 전망치, 2014년중 및 2015년중 전망치
자료: Insee

(금융)

□ 한편 주요 투자은행들은 유로지역의 저조한 경기회복 전망 및 이에 따른 미 연준과 ECB의 통화정책기조 차이 등을 감안하여 유로화 환율(달러/유로)의 장단기 전망치를 전월에 비해 하향 조정*

* 다만 최저치에 대한 장단기 전망은 전월수준을 고수

12.22~29일중 주요 투자은행[1]들의 환율(달러/유로)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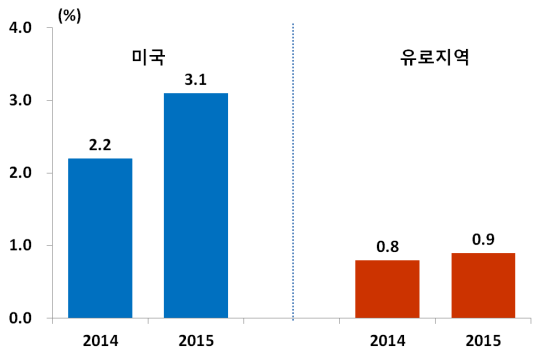


주 : 1) 전망일중 평균 환율 1.22(달러/유로)
2) Barclays Capital, Credit Suisse, JP Morgan, BNP Paribas, UBS, Goldman Sachs, Morgan Stanley, Citi, Deutsche Bank, Bank of America, HSBC, Standard Chartered, Nomura, RBS 등 14개 투자은행

자료 : 국제금융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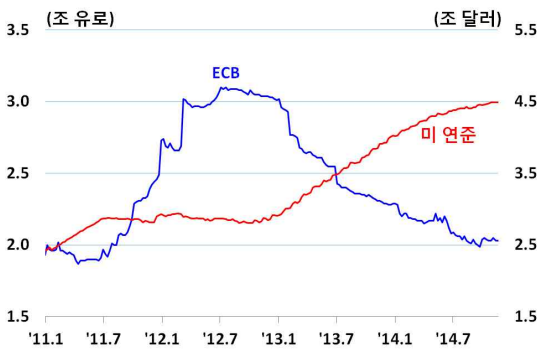
o 금융시장에서 미국의 경우 경제회복 속도가 유로지역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반영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도 미 연준이 ECB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 주로 기인

미국 및 유로지역의 GDP 성장률 전망치



자료 : Goldman Sachs

미 연준 및 ECB의 B/S 추이



자료: Bloomberg